

병자보서 역해(1876년 -고종13년-에 간행한 병자보 서문 입니다)

우리나라가 신라의 말집으로 고려의 현달하고 본조 중엽이상에서는 명덕이 이어졌고 장조가 잇다라서 족백에빛을 드리우고 응덕을 내후에 드리운자가 국중대가로 더불어 그명칭을 함께해 능히 서로 주장하지 못하더니 이로부터써 강채해서 위가크다고 이르지를 못하고 침체해 떨치지를 못해서 또 거듭 병선을 격어서 각집에 감춘호적이 없어지고 잃어버려서 열에 하나도 있지않아 지극한 행실과 떳떳한 덕이 가히 침울하지 못한자 군데군데 침체해서 전하지 못했느니

예전 건능정유(1777)에 죽고조 동흥군 수와공이 여기에 개연해서 예전족보를 상고하고 널리 공사문자를 캐서들고 본바와 성하게 칠권을 합보해서 중외에 전포하니 이에 상하천여년 본지원유가 간혹 의심을 전해서 뒤를 기다리는 한두곳이 있고 그나머지는 아울러 소명하기가 손바닥을 가르치는 것같으니 거의 유구를 증명해 의혹이 없으니 슬프다 선배의 긴덕으로 후세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찌 우연할뿐이라 칠십팔년을 지나서 철종갑인(1854) 또이십이년 금상병자(1876)에 봉사손인 섭이 선업을 쫓아서 인이신지하여 십삼권을 작성해서 거의 마친지라

내가 한말로써 역사하매 족보는 중한일이라 하나는 가로되 조상을 높이고 둘째는 가로되 일가를 거동이라 조상을 높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효도와 공경으로 근본을 하고 일가를 거동에 어떻게 하느냐 돈목으로 먼저하므로 대역에 왕가사당으로 빛남을 해서 천하의 근본을 모아서 주선생이 또한 범씨의 장사로 엮어서 소학서중에 기록한즉 선후완급한 차례를 가히 기록해 알지라 세대의 급수가 너무저하되고 순질한 바탕이 효상해서 비록 이름난집 큰종족들도 진실로 가로되 족보인즉 효와 간잡한데가 없지 않아서 사람의 기소한끝을 유전했거늘 또 하물며 우리씨족이 단한진실이 있고 후진들이 선덕에 미치지 못해 또 저명한 것이 지금에 있어서 각각시시로 힘쓰고 가다듬어서 마음을 바로 잡아 힘써 행해서 부조의 업적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목전에 급무이외에 제이건사라 그러나 가히 다행한건즉 현금 급수가 사람을 핍박하고 인륜과 상도가 땅에 떨어져서 부사에 의의 나라가 윤서가 상해서 하물며 오늘날 우리겨레 단약으로 어찌쉽게 주합해서 예전관습을 고치지 않을걸 바라겠느냐 이것을 말하면 이때 이역사가 가히 선대를 받들고 후세를 깨우쳐주는 힘이되고 다음날 진제작흥하고 부영창달 하는 것이 어찌 이족보 가운데 나오지 않느냐 이런즉 가히 글로서 하고 빠뜨릴 수 없어 글로써 붙이노라

1876년
송정오 임오 구월임자 후손 호조참판 익현근서